근기요산회 3,4월 봄맞이 산행

경복궁 둘러 북악산 성곽, 강서 개화산도 찾아

안동권씨근기요산회近畿樂山會가 3,4월 봄맞이 나들이를 겸하듯 서울 도심에서 가깝고 편한 곳을 찾아 가벼운 산행을 하였다. 3월 산행으로는, 3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반, 5호선 전철 광화문역 8번출구의 세종문화회관 뒤쪽에 집결하여 정시에 이동하면서 산행 아닌 도심 광장 걷기를 시작하였다. 광화문 네거리 광장의 충무공 동상에서부터 세종대왕 동상을 지나 새로 복원한 광화문을 관통해 들어가 흥화문을 거쳐 근정전을 관람하였다. 그리고 사정전, 경회루, 강녕전, 교태전 후원 아미산 등을 거쳐 새로 복원한 태원전·건청궁과 집옥재 등을 둘러보는 데 한 시간이 훨씬 더 걸렸다. 북쪽 신무문 밖까지 나가서는 청와대를 마주 건너다보고 돌아 나오기도 하였다.

경복궁 역내에서는 지참해온 것이라도 음식을 먹는 행위가 일체 금지되어 있다. 정오가 넘어 모두가 시장한데 준비해간 야외 음식을 펴놓고 먹을 장소가 없었다. 본디 경복궁 일원을 관람한 뒤 동쪽 영춘문 쪽으로 나가 삼청공원으로 이동하여 점심을 하려 하였는데, 영춘문은 개방되어 있지 않고 그 북쪽에 있는 민속박물관 통용문이 또한 전과 달리 한참을 우회해 올라갔다 되내려오게 통제되고 있었다. 시각이 정오를 넘겨 그 동문 밖에서 삼청공원까지 반 시간 이상을 이동하기가 어렵다 하여, 그 문안의 나무그늘 아래에서 어설프게나마 수문 근무자의 양해를 얻어가며 점심 식사를 하였다. 모두가 시장한 터라 다소 체면은 안되었으나 준비해간 먹을 거리가 다 맛이 있어 남김이 없었다.

▲ 요산회원들이 개화산의 서쪽 암벽 위에서 김포평야의 경인운하 공사현장을 조망하며 권영익 회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 요산회원들이 광화문광장에서 경복궁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

▲ 개화산의 동북쪽 전망대에서 서울 방향을 조망하고 있는 요산회원들

▲ 근정전의 정문 흥화문을 향하고 있는 요산회원들

식사를 마치고는 그곳에서 거의가 작별해 돌아가고 대여섯 사람만이 다시 이어지는 산행으로 바꾸어, 삼청공원을 거쳐 가파른 북악성곽길로 올라갔다. 이들 일행은 그 성곽길로 북악 정상을 넘어 급경사 내리닫이 계단길을 내려가 자하문에 이르고, 그곳에서 다시 인왕스카이웨이 아래를 따라 사직공원에 이르는, 숨은 절경의 샛길을 주파하였다.

4월의 산행은 서울 강서구 개화동과 방화동에 걸쳐 있는 개화산開花山을 탐방하는 것으로 하였다. 개화산은 해발 120미터 정도의 외딴 구릉으로들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 한번 올라가 둘러보고 내려오는 데도 1시간 반이 소요될만큼 크고, 그 중턱과 후미진 자락에는 고찰이 둘이나 자리하고 있었다. 정상에 군사시설이 있어 출입이 불가한 구역이 상당 부분인데도 등산로가 이곳저곳으로 많이 나 있어 종주를 해가며 다 탐방을 하기로 하면 하루 종일로 쉽지 않을 것 같았다.

4월 16일, 이달의 셋째 토요일 아침 10시 반에 서울 전철 5호선의 서쪽 종착역 직전의 개화산역 1번출구 밖에 회원들이 집결하였다. 이날 날씨는 화창하고 온누리에 봄꽃은 만발해 있었다. 역에서 이동해 백여 미터를 걸으니 시가지가 끝나고 등산로 입구가 나왔다. 인근 공항동에서 40년을 거주하며 이 산을 아침 산책길로 삼아온 권영익權寧翼 요산회장이 선도해 올라가며 요소마다에서 해설을 곁들여 주었다. 6·25당시 이 산에서 김포공항을 수비하며 격전 끝에 1천1백명이 옥쇄한 전적지 충혼비 앞에서는 권영익 회장의 해설과 유도로 묵념을 올리기도 하였다.

개화산은 서울의 강서구에 있는 유일한 산으로 김포평야의 동북단에 매우 너른 전망을 지배하고 있으면서 북으로는 한강의 풍광에 접하고 그 대안은 일산평야여서 낮지만 사방이 드넓게 펼쳐져 있다. 그 정상에서 바라보면 웅장한 명산 서울의 북한산도 지평선 가장자리의 그리 높지 않은 산자락 같이 보인다. 그래서 산은 항상 상대적인 것이어니와 비록 작고 낮은 동산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올라가보지 않고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강서구에서는 이 개화산을 애지중지하여 가꾸며 전망대와 시민의 운동시설 등도 갖추어 놓고 있었다. 이 개화산은 그 정상에서 동서로 양분하여, 동쪽은 이 지역에 4백년을 세거해온 풍양조씨豊壤趙氏가 그 세장산世葬山을 삼고 있고, 서쪽은 안동권씨가 3백년 전부터 세거하며 종산을 삼고 있다. 추밀공파 양촌 문충공·안양공계로서 근자에 정간공靖簡公종회장을 지낸 고 권혁근權赫根씨의 집이 현재도 이곳 개화동에 있고 그 선대가 일대에 세거해온 바였다.

<사진·글 權炳逸>

근기요산회 정기총회 및 월례산행

안동권씨근기요산회近畿樂山會의 2011년도 정기총회와 5월 정기산행을 아래와 같이 행하오니 많은 회원의 참여 바랍니다. 항상 가족 및 노약자의 동반을 환영합니다.

일시 : 2011년 5월 21일(셋째주 토요일) 10시 30분
집결 장소 : 서울 전철 1호선 및 3호선 종로3가역 11번 출구
행사 장소 : 종묘 및 창경궁 일원
준비물 : 운동화 및 야외복 차림에 선택적 이동식(임의)
연락처 : 총무 권병일 011-289-1747

안동권씨근기요산회장 權 寧 翼

격려에 감사합니다

3월 12일 고양시 풍동의 권혁찬權赫燦씨가 5만원을,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권헌씨가 3만원을, 4월 10일 횡성 급사중공종회에서 10만원을 협찬하여 주시었습니다.